

## 주요 주제

- 2016동방경제포럼 이후 1개월 안에 극동에 유치된 투자금 1000억 루블
- 극동에 중국사업 지원센터 설립 예정
- 극동 14번째 선도개발구역 사하공화국 (야쿠티아)에 형성



## 동방경제포럼 뉴스

2016년 10월 14일, Izvestiya

### 2016동방경제포럼 이후 1개월 안에 극동에 유치된 투자금 1000억 루블

제2회 동방경제포럼의 결과로 투자규모가 큰 프로젝트들에 장기 혜택을 부여하고 지역 인프라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일부 세금감면을 제공하는 이니시어티브들이 준비되었다. 극동에 유치된 투자총액은 1조 2320억 루블을 돌파하였다. 알렉산드르 갈루시카 장관에 의하면 2016동방경제포럼이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극동개발도구로서 적합하다고 확신할 수 있다. <http://izvestia.ru/news/637736>

2016년 10월 11일, Коммерсант.Ru

### 알렉산드르 크루티코프 극동투자유치 및 동방경제포럼 준비 총책으로 임명

알렉산드르 크루티코프가 극동개발부 차관으로 임명되었다. 신임 차관은 투자유치, 국제협력 동방경제포럼 준비 및 극동투자유치청, 극동개발기금과의 업무 조율을 책임진다. <http://www.kommersant.ru/doc/3112977>

## 극동 국가 정책

2016년 10월 27일, minvostokrazvitia.ru

### 싱가포르, 극동 지역 내 대러협력 강화 의지

싱가포르는 극동 발전 우선분야들에 투자할 준비가 되어있다. 철도, 항만, 공항, 조선 및 항공기 산업을 포함한 인프라 분야이다.

러시아 극동개발부 오시포프, 크루티코프 차관들과 싱가포르 통상산업 및 국가개발부 코포쿰 장관이 가진 면담에서 석유가스정제, 현대도시환경개발, 양질의 접근성 높은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싱가포르가 보유한 경험이 논의되었다. «현재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 근대화 사업에 Changi사의 참여 계약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크루티코프 차관이 밝혔다. [http://minvr.ru/press-center/news\\_minvostok/?ELEMENT\\_ID=4724](http://minvr.ru/press-center/news_minvostok/?ELEMENT_ID=4724)

2016년 10월 27일, minvostokrazvitia.ru

### 극동에 중국사업지원센터 설립 예정

러중 플랫폼은 투자프로젝트 홍보 및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 입주기업 유치를 위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중국발 투자의 양적, 질적 향상이 가능하다. 극동 투자 및 수출 지원청과 극동개발기금이 새 플랫폼의 러시아 측 운영을 담당할 수 있다.

알렉산드르 갈루시카 장관에 의하면 현재 극동에 중국기업들이 참여하는 1800억 루블 이상 규모의 21개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다. [http://minvostokrazvitia.ru/press-center/news\\_minvostok/?ELEMENT\\_ID=4703](http://minvostokrazvitia.ru/press-center/news_minvostok/?ELEMENT_ID=4703)

2016년 10월18일, TASS

### 2030년 극동인구 850만명에 달할 것

러시아 극동개발부의 자료에 의하면 극동 인구 유출이 지난 몇년간 4.2배 감소하였다. 극동 인구는 2030년경 850만명에 달할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인구지표는 극동 인구정책 컨셉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다. <http://tass.ru/ekonomika/3712168>

2016년 10월 13일, rcsme.ru

### 극동 소기업에 저금리 대출 제공

극동 및 바이칼 지역 개발기금의 지원으로 연12.5 ~ 13.5%의 저금리 대출이 제공된다. 스베르뱅크와 함께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해당 협약은 동방경제포럼에서 체결되었다.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극동개발기금은 스베르뱅크에 연 5% 이자율로 자금을 지원한다.

기금의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 공동대출지원으로 시세보다 4~5% 낮은 금리가 가능해지며 대출 기간도 10년까지 연장된다. <http://rcsme.ru/ru/news/show/82064/Малому-бизнесу-на-Дальнем-Востоке-предложат-кредиты-под-135/1105/13-10-2016>

2016년10월 4일, vestiregion.ru

### 러시아 정부,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국경검문소 운영 메커니즘 승인

해당 시행령은 메드베데프 총리가 서명하였다. 시행령에 따라 검문소는 24시간 운영되며 화물이 러시아 국경을 통과할때 «한 창구» 개념이 적용되고 세관신고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할수 있게 된다.

«한 창구» 개념은 러시아 국경에서 세관 및 기타 검사를 효율적으로 방해없는 진행을 가능하게 한다. <http://vestiregion.ru/2016/10/04/pravitelstvo-rf-utverdilo-mexanizm-raboty-punktov-propuska-svobodnogo-porta-vladivostok/>

## 극동 경제

2016년 10월28일, minvostokrazvita.ru

###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감사위원회 35개 신규 투자프로젝트 승인

민간투자총액은 약 940억 루블에 달한다. 37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된다. 알렉산드르 갈루시카 장관에 의하면 신청들은 자유항 체제가 확대된 신규 지역들로부터 접수되기 시작했다.

특히 바니노항에 액화천연가스 환적 터미널을 건설할 예정이다. 부르니 곶 (하바롭스크 주) 인근에 석탄환적터미널이 들어선다. 신청기업인 유즈니 터미널 Co.Ltd는 2020년까지 코르사콥스키 어업물류가공센터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http://minvr.ru/press-center/news\\_minvostok/?ELEMENT\\_ID=4729](http://minvr.ru/press-center/news_minvostok/?ELEMENT_ID=4729)

2016년 10월 26일, VladNews

### 중국, 극동에 7500억 루블 이상 투자 의향

중국측은 러시아측에 극동연방관구 13개 투자프로젝트 목록을 전달하였으며 해당 프로젝트 추진에 9개 중국 기업이 관심을 보이며 총 투자규모는 7500억 루블 이상이다. 극동 천연자원 채굴 및 가공, 농업, 항만 및 물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들이다.

해당제안은 북경에 있었던 러시아극동개발부크루티코프차관과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ning 지제 부의장의 면담에서 전달되었다.

또한 양측은 프리모리에-1, 프리모리에-2 국제교통로 및 볼쇼이 우수리스크 섬 개발에 대한 합의점에 도달하였다. <http://vladnews.ru/2016/10/26/114915/kr-zainteresovana-v-investirovanii-v-dfo-bolee-750-mlrd-rublej.html>

## 극동개발 신규 정책: 성공사례

2016년10월 26일, 극동 캐피탈

### 하바롭스크 선도개발구역 입주기업 캐나다로 암면 수출 개시

«TekhnoNIKOL DV»사의 하바롭스크 공장에서 다국적 샌드위치 판넬 제조사의 주문으로 생산된 현무암질 단열재 첫 물량이 캐나다로 수출되었다. 기업은 향후 하바롭스크산 현무암질 단열재 캐나다 소비층의 확대 및 정기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

암면 생산공장은 2016년 8월말에 가동되었다. 연간 생산력은 75만 입방미터이다. 2019년까지 하바롭스크 선도개발구역 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수출을 20% 증가할 예정이다. [http://dvkapital.ru/regionnow/khabarovskij-kraj\\_26.10.2016\\_8968\\_postavki-kamennoj-vaty-v-kanadu-nachal-rezident-tor-khabarovsk-zavod-tekhnonikol--dalnij-vostok.html](http://dvkapital.ru/regionnow/khabarovskij-kraj_26.10.2016_8968_postavki-kamennoj-vaty-v-kanadu-nachal-rezident-tor-khabarovsk-zavod-tekhnonikol--dalnij-vostok.html)

2016년 10월14일, TASS

### 14번째 선도개발구역 사하공화국 (야쿠티아)에 조성

유리 트루트네프 전권대표가 의장으로 있는 극동 및 바이칼지역 투자 프로젝트 추진 관련 정부분과위원회가 새 선도개발구역 조성을 승인하였다.

유즈나야 야쿠티아 선도개발구역에 대형 산업센터가 형성될 예정이다. 2개 부지에 총 247억 루블 규모의 민간투자가 유치될 7개의 광산업 및 교통물류 산업이 추진된다. <http://tass.ru/ekonomika/3704103>

2016년10월 11일, forumvostok.ru

### 사할린 고르니 보즈두흐 선도개발구역 확장

선도개발구역에 추가로 유즈노사할린스크의 2개 부지가 편입되었다. 해당 제안은 러시아 극동개발부에 제출되었다. 고르니 보즈두흐 선도개발구역의 잠재 입주기업인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사는 해당 부지들에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 신규 터미널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알렉산드르 갈루시카 장관에 의하면 해당 프로젝트는 관광객 증가, 항공운송 저변확대, 항공편수 증가 등 효과를 가진다. <https://forumvostok.ru/rasshirena-tor-gornyj-vozduh-na-sahaline>

2016년 10월 5일, DV-ROSS

### 선도개발구역 입주기업, 하바롭스크인근에 60억 루블 투자로 내륙항만 건설

사마라홀딩사는 라키토노예 터미널물류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지역에 22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센터조성은 극동연방관구 사마르가 국제교통로의 통합 체계를 구축하는 첫 단계이다. 새로 조성되는 센터의 주요 과제는 물류업자들간 소통 조율, 화물 처리 및 운송 기간 단축, 화주 리스크 최소화이다. <http://trud-ost.ru/?p=465391>